



제19회 定期總會 開催

金聖培건설부장관등 내빈다수참석
新任會長에 吳雄錫 會員被選



第19回 定期總會 및 自律淨化決意大會

1984.10.22

大韓建築士協會

본협회 제19회 정기총회가 10월22일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자율정화추진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는 상오10시 金聖培 건설부장관을 비롯 정순호 주택국장과 관계관 및 1백13명의 전국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金枝泰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성원보고와 국민의례, 국민교육헌장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화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金枝泰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있는 부조리의 척결과 직업윤리의 함양을 통해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는 대다수 회원들을 위하여 일부 사이비 건축사를 과감하게 색출하는 자율정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건축사 풍토를 조성하는데 함께 힘쓰며, 숙원이었던 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成年協會의 새로운

전환기에서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형창작예술인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함은 물론 회원상호간의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협동단결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쓰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만료된 金희장은 협회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金聖培 건설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19년이란 세월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룬 협회의 성장을 축하하며 회

원을 위한 협회로서 회원의 권익증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은 물론 건축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을 치하했다.

특히 金장관은 건축물은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일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공간을 통하여 창출되는 아름다움은 그 사회와 그 시대 문화를 반영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많은 국가자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문화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니 작은 주택 한 채를 설계할 때에도 이것이 곧 국가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金聖培 장관의 치사에 이어 84회원 작품공모전 대상을 받은 대호건축의 金寬旭회원에 대한 장관의 시상이 있었고 나상기 건축가협회장의 축사가 뒤를 이었다.

'84會員建築設計作品公募展入賞作施賞 模範職員 11명도 표창

이러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회원의 건축설계 기술향상을 도모하며 일반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본 협회가 마련했던 84년도 회원건축설계 작품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한 시상이었다.

大賞은 전술한 것과 같이 金聖培 건설부장관에 의해 시상되었고 最優秀賞, 優秀賞 獎勵賞은 본협회 金枝泰 회장에 의해 시상되었다.

이날 수상한 입상자는, 본지 9 월호에 발표된 바 있지만 大賞은 용평리저트컴플렉스를 출품했던 金寬旭씨(대호건축연구소)가 수상했고 最優秀賞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출품했던 權卓雄·崔泰容씨(주·정림건축)가 수상했으며 優秀賞은 갈현동소나무집을 출품했던 柳春秀씨(공간연구소), 계명대학교 학생회관을 출품했던 林八岩씨(동인건축) 도예가 원고수택을 출품했던 崔勝元씨(태을건축) 등이 수상했다. 金仁錫씨(단국대학교 난

과기념음악관 출품 / 건축연구소일건) 金重業씨(부산시 충혼탑출품 / 김중업건축연구소) 金泰燮씨(논산H씨 주택출품 / 신화건축설계사무소) 柳然昌씨(목욕탕 및 주택 / 미도 & 류 건축연구소) 李起範씨(용인성당 / 주·도시건축) 李相憲씨(홍성상호신용금고사옥 / 대우건축연구소) 李仁守씨(호텔 낙산비치 / 목전종합건축사무소) 黃一仁씨(국립경상대학교학생 및 교수회관 / 건축연구소 일건) 등은 獎勵賞을 받았다.

이어서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본부직원과 지부직원 등 11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표창을 받은 11명은 회원의 업무 및 협회발전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고 품행이 단정하고 직무에 근면하여 다른 직원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됨으로써 84년도 모범직원상 수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추대회원 18명 추대

모범직원 표창을 끝낸 金枝泰 회장은 역대회장을 비롯한 18명의 고령 회원에게 추대회원증을 수여했다.

추대회원은 매년 해당회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하게 되며 역대회장과 회원중 만65세가 되는 회원이 대상자가 된다.

이날 추대회원으로 추대된 회원은 서울지부소속회원 9명, 전북, 전남 각 2명 인천, 경기, 강원, 경남, 제주지부소속회원 각 1명씩이다.

이어서 1984년도 임시총회 회의록이 의미없이 승인되고 그간의 주요업무가

보고되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 업무 가운데 주요업무만 요약하면 주택 및 건축분야 순회 교육실시, 도시환경과 가로조형 책자 제작 배부, 건축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간담회 개최, 주문주택 사업광고에 관한 조치,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회의 참석, 건축사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종합, 대정부 간담회 개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제정(안) 반대의견 건의, 회원작품순회 전시회, 건축연구분과위원회, 회관신축공사 등 27개항의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사항이 보고되었다.

協會운영 전반 監查結果 報告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감사결과보고가 있었다.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7일 까지 실시한 협회본부 및 산하 13개 시도지부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를 행정 및 회계부문으로 나

누어 朴弘雨감사와 李春相감사가 각각 보고했다.

朴弘雨감사는 감사총평을 통해 지난 임시총회를 대비한 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업무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 지도

推戴會員名單

蔡龍雲	인천·금호건축연구소
金東淑	경기·화성건축연구소
元鎬昌	강원·종합건축설계
許 鏞	전북·호남합동건축사
虛承奇	전북·노승기건축설계
金成秋	전남·가야건축사무소
高在淑	전남·진남건축사무소
文仁相	경남·김해건축설계
朴光鎭	제주·수북건축설계사
玄錫洪	서울·경일종합건축
任亨宰	서울·우성건축·설계
李秉均	서울·(주)태양건축
李鍾億	서울·용일건축
李明春	서울·상건축연구소
徐鉉鎭	서울·서영건축설계
朴定秉	서울·동산합동건축
黃肅在	서울·협성건축설계
嚴德紋	서울·심원건축설계

하고 금번 정기총회를 대비하여 업무 전반적인 감사로서 협회 및 지부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분장별 책임의식 및 업무처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밝히고,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시정 되었으며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현저히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직원 퇴직에 따른 업무 인수 인계가 철저히 못하여 후임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시정사항으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별로 현황을 철저히 기록비치, 회원카드정리 철저, 설계도서 신고대장의 비고란에 지층면적 표기방법강구, 사회정화운동 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상화 등을 들었다.

연구검토 사항으로는 분소설치 운영규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연구와 건축물의 조사감정 업무규정의 추천 기준의 보완·연구, 정관 제15조 및 34조의 임원 선출규정의 선거관리내규의 제정을 건의했다.

한편 李春相감사는 회계부문감사결과 개선사항으로 각지부가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 할 때 사전에 본부와 협의

任員名單

會長	吳雄錫(新)	서울·新潮건축연구소
副會長	金基壽	大韓建築士協會
理事	金圭泰(新)	부산·渚都건축설계사무소
理事	金奉勳(新)	서울·新新건축연구소
理事	金在佑(新)	대구·韓南건축설계사무소
理事	金亨仁	서울·世韓건축종합사무소
理事	申貞桓(新)	서울·세익종합건축연구소
理事	俞景哲	서울·綜合건축설계
理事	李永熙	서울·熙林건축설계사무소
理事	林在植(新)	광주·金星종합설계공사
理事	韓鍾彦	서울·金星건축연구소
監事	柳根洵(新)	대전·류근열 건축연구소
監事	李康植(新)	서울·(주)완綜合建築

本協會 新任會長에 吳雄錫 會員 被選

오후 4시경 회장 및 일부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개선이 있었다.

장기인 초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하여 회장선거에 들어간 결과 재적 대의원 112명 중 64표를 득표한 吳雄錫 회원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의 개선이 있었다.

이날의 임원개선은 임기가 만료된 金仁錫 이사, 李用夏 이사, 尹鳳源 이사, 金暎植 이사와 朴弘雨 감사 등 5명의 임원이 대상이었으나 잔여임기 1년을 남기고 있는 成勳燮 이사와 李春相 감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여 총의에 따라 받아들여짐으로써 7명의 임원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理事에 金奉勳 씨(서울·新新건축연구소), 金在佑 씨(대구·韓南건축설계사무소), 申貞桓 씨(서울·세익종합건축연구소), 林在植 씨(광주·金星종합건설공사), 金圭泰 씨(1년 임기. 부산·渚都건축설계사무소) 등 5명이고 감사는 柳根洵 씨(대전·류근열·정인협건축연구소), 李康植 씨(1년 임기·서울·(주)완종합건축) 등 2명이다. (신임 임원 취임 소감 참조)

임원개선후 「대한민국」과 「협회」와 「건축사」의 무궁한 번영발전을 기약하는 만세를 각각 3창씩, 힘찬 9창을 吳雄錫 신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한후 오후 4시 5분, '84년도 제19회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의 막을 내렸다.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 참석

대한건축사협회 金枝泰 회장을 비롯, 金知德(惟新設計公園 建築設計代表), 朴奎永(오성합동건축연구소) 金昌瑞(협화건축설계사무소) 회원으로 구성된 4명의 한국건축사 대표단과 洪貞吉(미건사합동건축사무소) 회원등 15명으로 구성된 업서버 등 일행 19명이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에 업서버자격으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하여 예산배정 가능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할 것이며 각지부의 사무실 규모는 회원수와 지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무소 임대차보증금의 불균형을 시정토록할

것을 지적하였다고 밝혔으며 또 각종 경리서류 양식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시행할 것 등 본부 및 지부별 시정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적했다.

定款 및 倫理委員會規定 개정 승인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가서는 정관 및 윤리위원회규정개정(안)이 상정,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정관개정은, 제7조의 추대회원은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이라도 정회원 자격 연수를 15년이상으로 개정한 것을 비롯하여 제10조, 12조, 15조, 16조, 34조, 36조를 수정보완했다. 또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은 제2조의 위원 위촉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5조, 10조, 11조, 15조, 18조 등을 개정했다.

한편 두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금년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事業計劃 및 収支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된 85년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각지도지부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사업추진, 건축연구위원회의 연구활동의 활성화로 회원의 복리증진 및 업무개선, 건축실무 및 신공법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 전개, 건설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 계몽활동 강화, 회지의 내실화, 협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홍보지 발간으로 홍보활동 강화, 회원건축설계 작품 공모 및 순회전시회, 국제교류실시, 건축계 부조리 척결, 회원및 협회 홍보활동 적극전개, 설계도서의 질적 향상 및 기술지도와 행정기관의 심의제도 개선책 강구등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全國支部予算을 포함하여 18억원에 달한다.

예산 총당에 따른 세입으로는 월정회비를 비롯해서 실적회비와 사업수입, 잡수입,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로는 각종회의비, 관리비, 사업비, 인건비, 사무비, 판공비, 경조비, 자산취득비, 적립금, 복리후생비, 예비비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총규모 1억 4천 만원에 달하는 85년도 특별회계수지예산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특별예산은 회원 폐업환불금과 임대보증금 충당 적립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前任會長으로부터 協會旗를 傳受하는 吳雄錫 新任會長

吳雄錫會長就任 會長離就任式거행

본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임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회의실에서 金枝泰 전임회장과 吳雄錫 신임회장의 이,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이임한 金枝泰 전회장은 지난 2년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큰 과 오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의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고 이 임인사를 했다.

이어 15대 회장에 취임한 吳雄錫 회장은 “역대 회장과 선배회원들께서

이룩하여 주신 업적을 바탕으로 협회를 더욱 빛내고 발전시켜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기중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미흡점을 자율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과, 연합회제도에 대한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 10개 항에 걸친 업무방침을 피력했다.

이임하는 전임임원들에게는 그동안

研究分科委員會消息

建築研究委員會 構造研究分科委員會

제10회 구조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李用夏)가 지난 10월 19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현장체크리스트의 각 공사별 점검사항중 지정공사, 철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철골공사의 세부항목을 최종검토 결정하여 체크리스트의 초안이 작성되어, 회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위원장, 주경재, 김창서위원이 수정; 보완하여 차기회의시 제출함으로써 금년

도 연구사업을 종결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85년도에는 이제까지 연구·작성한 체크리스트에 상세한 설명을 붙여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발간할 것을 결정했다.

建築研究委員會 設備研究分科委員會

제 8 회 설비분연구과위원회(위원장 朴容漢)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영위원이 연구한 반송설비 시방서와 조영민 위원의

의 노고에 감사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와 기념품 증정이 있었으며 이·취임식이 끝난 뒤 오후 4시부터 신규임원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협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吳 雄 錫 會 長 略 歷

본 적 : 서울특별시 (1930年生)

1954년 9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65년 7월 建築士 면허 취득

1969년 9월 技術士 국가기술자격
증 취득

1965년 7월 新潮建築研究所 개설

1966년 3월 - 1976년 2월

韓國建築家協會 理事, 製作分科
委員長, 韓國建築三團體(士協,
家協, 학회) 設計競技運營委員
長 U. I. A 총회 (1972년도) 韓國
代表

1972년 10월 - 1974년 10월 大韓
建築士協會 理事, 編纂委員長

1976년 3월 - 1978년 2월, 大韓建
築學會 理事

1982년 10월 大韓民國 建築大展
運營委員 및 招待作家

1982년 11월 大韓建築士協會 서울
特別市 支部長

1984년 7월 서울特別市 市政諮
問委員會 諮問委員(都市開發)

1984년 10월 大韓建築士協會會長

受 賞

1982년 12월 서울特別市 建築賞
授賞

1984년 10월 韓國建築家協會賞
授賞

1984년 10월 서울特別市 功勞表彰
狀 授賞

알림

지난 10월호 p.17 협회소식의 대구 지부 소식 중 지부장 金在佑는 黃鑄周의 오식이었기 바로 잡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85사업계획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會員福利增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관계 정보자료실 운영 나. 예규집 발간 다. 복리향상을 위한 연구 라. 견학회실시 마. 회원업무 개선추진 2. 會員相互親睦圖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원친목단합대회 나. 회원명부발간 다. 간담회 3. 創立20周年 紀念行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행사 개최 4. 建築士業務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관계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나. 건축연구위원회 운영 다.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 라. 설계도서검토에 관한 연구 5. 展示會開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작품전시회 나. 우수건축자재전시회 6. 會員品位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세미나 및 강연회 나. 작품집 발간 7. 指導啓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무소 및 업무에 관한 지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몽 8. 補助員資質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보 및 보조원 강습회 9. 出版事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지 "건축사" 발간 10. 國際交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추진 11. 監查活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기감사 실시 나. 특별감사활동전개 12. 社會淨化運動展開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식개혁운동 나. 거래질서확립 다. 기타교육 캠페인 13. 새마을運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새마을 운동활성화 14. 豫算 및 物資節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절약운동전개 15. 奉仕活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행정상당실 운영 16. 弘報活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활동전개 17. 人力管理 및 業務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강구 |
|---|---|

건축법과 소방법상의 문제점 비교연구, 민만기위원과 손장열위원의 건축설비중 에너지 절약에 관계되는 설비부분연구, 김상욱위원이 연구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착안사항 등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여 회지에 낼

수 있도록 원고제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85년도 연구사업계획으로 ① 병원 건물층의 위생, 공조, 전기설비 실태 조사. ② 일본건축사협회가 발행한 "건축설비"를 번역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支 部 消 息

서울市支部 강습회, 친목회 개최

서울지부 (지부장 吳雄錫)는 지난 10월 17일 (주)종근당 사옥에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정덕·주남철 교수를 초빙하여 회원의 업무능력 신장을 위한 현대 건축과 전통건축 강습회를 가졌다.

이어 10월 20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장흥유원지에서 회원친목을 위한 야유회 및 친선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150여명의 회원과 지부직원들은 축구대회와 배구대회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大邱支部 제1회 회원종합작품전시회개최

大邱支部(지부장 黃鏞周)는 건축 및 회원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건축문화 창달과 회원의 창작 의욕고취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대구 건축

사회관에서 회원종합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대구 건축사 회원들은 1983년 5월 1일부터 서예 회화 수석 등산 골프 정구 바둑 낚시 등 8개분야에 걸쳐 매주 또는 매월 행사를 통한 여가선용 겸 취미활동으로 회원간 친목 단합을 꾀해 왔는데 이번에 전시된 건축 서예 사진 회화 수석 등 5개분야 131개 회원작품은 그간의 취미활동을 결산하는 전시회인 셈이다.

7일간 연인원 1천3백여명이 참관했던 이 전시회에는 본회 부회장을 비롯 대구직할시 부시장, 대한건설협회 전문회원 대구직할시지부 협의회 운영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지부장,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 경북지부사무국장,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부장, 한국건축가협회 대구·경북지부장, 신원협동조합연합회 대구직할시지부 사무국장, 중구청 건축과장·계장, 등 관계인사와 지역인사들이 개관식에 참석 축하해 주었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별 출품수는 다음과 같다.

- 건축 : 42작품 • 서예 : 29작품
- 사진 : 32작품 • 회화 : 8작품
- 수석 : 20작품

• 학생작품 : 영남대학교 3작품, 대구대학교 2작품, 계명대학교 1작품
대구지부(지부장 黃鏞周)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베풀기 작업을 지원했다.

해마다 농촌일손 돕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부는 지난 10월18일에도 소속지부 회원과 직원등 119명이 대구시 동구 북무동 3,000여평의 논에서 베풀기 작업을 하여 농민들을 도왔다.

京畿支部 거리질서및자연보호캠페인

경기지부(지부장 林龍洙) 안양분소(崔在楠)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안양 시청앞 횡단 보도에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계도캠페인에는 연 48명이 참가했다.

또 10월 18일에는 회원 81명이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전남 송광사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주변의 오물·쓰레기 수거등의 청소 작업을 실시하였다.

仁川支部 84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

인천지부(지부장 高昌永)는 지난 10월19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문화회관 전시장에서 '84회원 건축설계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인천직할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본회 회장을 비롯 1천5백여명의 관람인파가 참가하여 연일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10월24일 성황리에 마쳤다.

全南支部 전남북회원 친선낙시대회

전남지부(支部長 林在植)는 지난 10월 12일, 전라남·북도 지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키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선낙시대회를 전남회원 39명, 전북회원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장성호에서 개최했다.

낙시대회가 끝나고서는 전남북회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각도 지부장 인사말씀에 이어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회원친목을 다졌는데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어상 전남 유연모(28.3cm),/ 대어 2위 전북 김사옥(28cm, 대어 3위 전남 선재규(27.8cm),/ 대어4위 전북 이정선(27.6cm) / 대어 5위 전남 이수(27cm) / 행운상 전북 유용순(날치) / 잡어상 전북 최낙운(메기)

대구·전남지부 골프동호인 친선경기

全南支部(지부장 林在植)는 10월18일 광주 C.C.에서 대구·전남지부 골프동호인 친선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남지부 골프동호인회 회장 채규당(광일건축) 외 14명, 대구지부 골프동호인회 회장 김종규(대아기술공사) 외 7명, 게스트로 경남지부에서 이종태 지부장의 3명, 전북지부에서 전형직 지부장의 3명, 본협회에서 한중연, 이영희 이사 등 총 33명이 참석



〈서울支部〉
현대전통건축 세미나



〈大邱支部〉
제1회 회원종합작품전시회



〈仁川支部〉
84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



〈全南支部〉
전남북회원친선낙시대회

한 가운데 벌어진 이번 친선경기에서는 Net70을 기록한 김원(대구)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의 영광은 Gross 77의 정병문(전남) 회원이 차지하였다.

양 지역의 특산물인 대구사과와 담

양 죽공예품이 참가회원 전원에게 선물로 증정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한층 높였으며 드높게 트인 푸른 초원에 는 정을 두텁게 하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 소리가 가득 넘쳐 아름다운 풍경화 한 폭을 그려내는 듯 했다.



회원동정
會友 尹太鉉씨 書畫展

本協會 會友인 尹太鉉씨가 11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 1 전시실에서 민족통일축진회 후원아래 (민족 통일 반만호 목표 중 오천호 집필완료)를 기념하는 靜石 尹太鉉 書畫展을 개최하였다.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은 書畫를 제작, 매년 정기적인 전시회를 마련해 오고 있는 尹太鉉씨는 이번에도 (民族統一)(2 천號) 등 34작품의 서예작품과 산수화 (絶塵) 등 27작품으로 墨香 짙은 전시회를 차려 만추를 장식했던 것.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203-4 (TEL 83-1567, 4517)에 畫室을 차리고 있는 尹太鉉씨는 1930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7세부터 장충소학교 서예대표를 5번 연임하는 등 비범한 실력을 과시했다. 이래 서예와 묵화에 남다른 경지를 개척하며 꾸준히 정진하여 온 尹太鉉씨는 오늘날 書畫界와 건축미술계의 중진으로 후배 양성과 독자적 세계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李元均씨 本協會 來訪

한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漢陽工大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현재 미국 AIA 회원으로 활약중인 李元均씨가 지난달 15일 本協會를 내방하였다.

李元均씨는 그간 美洲지역의 건축법책자, AIA의 제반규정 등 자료의 협조로 회원업무처리는 물론 建築士法, 建築法の 改正建議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本協會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다.

本協會는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건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의 협조를 얻어 技術과 建築 전반에 걸친 情報의 취득·축적을 적극화 하기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거니와 이를 계기로 해외에서 활동중인 건축인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유대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건축인들의 활기찬 연구활동이 좋은 성과 있기 기원하며 계속적인 협조를 本協會는 바라고 있다.

제주지부 康奇汀회원
제주전문대에 도서기증

본회 제주도 지부 창립 지부장과 제 2대, 제 5대 지부장직을 역임하면서 제주도 설계심사위원, 제주시 도시계획위원, 제주도 도정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하여 본협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康奇汀 회원(신일건축설계사무소)이 지난 10월 4일 古稀를 맞아 평소 숙원이던 후진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건축관계 저명서적 1백71권(시가 1백50만원 상당)을 구입, 제주전문대학에 기증하여 흐뭇한 미담을 피워냈다.

향토지인 제주신문도 10월 29일자 신문에서 <제주시 소재 신일건축설계사무소 康奇汀씨는 27일 제주전문대학 도서관에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와 학습자료로 이용토록 도서 1백71권을 기증했다>고 보도하면서 미담 사실을 전했다.

취임소감



理事 金圭泰

이번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직을 맡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사로 선임해준 전국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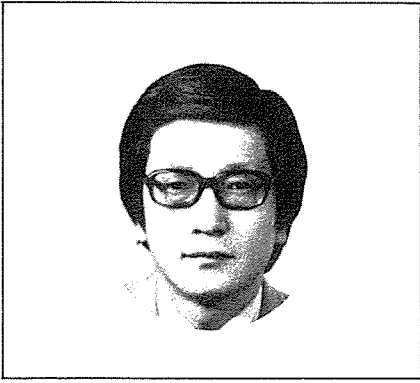
본 협회도 이제 명년이면 20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 임원들의 협회발전에 쌓아온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져진 기초위에서 회장님 이하 여러 이사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더욱 큰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천을 넘는 회원의 단합된 힘을 모아 제도상의 문제점을 타개하도록 연구함으로써 건축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갈 것이며,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협회의 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의식이 발휘되지 않고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의 참여의식이 높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 건축사들은 사회에서의 활동영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례하여 사회가 건축사에게 바라는 바 기대 또한 커지고 책임 또한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두가 정의를롭고 아름다와 다른 모든 분야에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훌륭한 협회, 더욱 훌륭한 회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 1933. 1. 26일생 경남 김해
- 한양대학교 공대건축공학과 졸
- 동아대 공과대학 강사
-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지부장
- 부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부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 한국 건축가협회 부산지부장(현)
- 부산시 건축위원회 위원(현)
-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理事 金奉勳

이번 제19회 정기총회에서 본협회 이사로 선임되어 협회운영에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건축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상태의 여건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건축의 각분야별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모름지기 전문건축인으로서의 긍지를 갖춘 보다 향상된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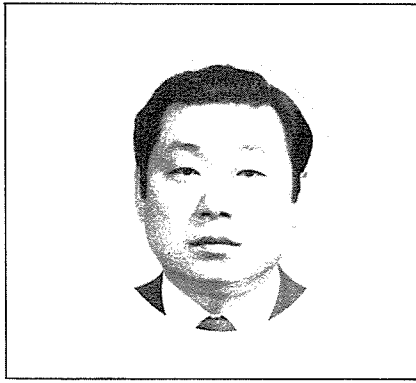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 건축설계분야도 국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건설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외에도 눈을 돌려서 해외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고 또한 우리 건축문화의 해외교류에도 힘써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속제되어 왔던 우리 건축분야에 관한 건축행정의 조직개선방안도 검토되어 보다 향상된 건축정책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계의 선배님들이 잘 다듬어 온 협회의 운영에 미력이나마 힘이 되어 협회운영이 보다 앞찬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 1940. 3. 1 일생 대구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건설공학과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 신신건축연구소 대표(현)
- 연세대, 건국대 건축공학과 강사
-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



理事 金在佑

본인은 제19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직을 맡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력이나마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좌충우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쪼여 박히고 저쪽으로 가도 걸어차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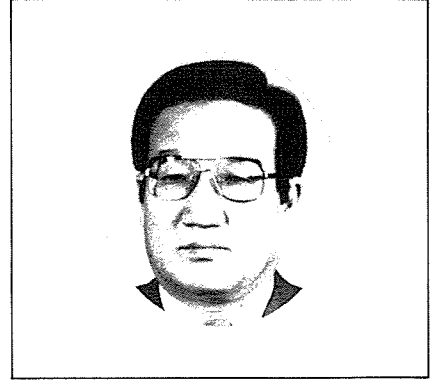
건축사(개업건축사)는 권한도 없고 신분의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무거운 의무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고객은 절대 다수가 시민대중입니다. 성실한 업무와 훌륭한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모든 건축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탁시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경제능력 요구 등에 타협 하여야만 비로소 업무가 수탁 됩니다. 타협된 작품이 어디엔가 모자람이 있을 것이며 감리중 크고 작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어도 위반사항을 보고(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한국인이 타고난 선심일진대 건축사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회원은 건축주(주택업자)의 부당한 요구와 감사(행정처분)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협회는 회원을 위해 제도상 많은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갑자년이 지나고 을축년이 되면 협회 창립 20주년 성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회장님을 정점으로 모든 임원과 2천 회원이 단합된 의지로서 협회 발전과 나의 발전을 기약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1937. 5. 14일생 경북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표(현)
-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회원(현)
- 경상북도지부 지부장 역임
- 대구직할시 지부 지부장 역임



理事 申貞桓

협회발전의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때에 역부족한 저를, 우리 협회가 성년이 되던 날(협회 창립 19주년) 협회 이사로 선임해 주신 전국대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신임 오웅석 회장의 취임사에서 밝힌 협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운영의 결실을 위하여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안정과 발전이 확보된 기반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건축예술의 참다운 구현과 협회의 융성을 위한다면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2,100여 회원이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친목과 협동의 기운을 더욱 높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원은 저마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협회발전에 앞장서며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런 기풍이 확립될 때 정부로부터 우리들의 업무신장과 권익신장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진행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공동체 의식을 다같이 발휘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특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사업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오며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 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1930. 12. 29일생(경남)
-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시공 기술사
- 이화여자 대학교 건설과 근무
- 수도공고 설계담당
- 정진엔지니어링 대표
- 세익종합건축 대표

취임소감



理事 林在植

이번 총회에서 부덕한 이 사람에게 이사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준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반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협회도 19년이라는 년윤이 쌓여 청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들도 고도산업사회의 변혁에 발맞추어 建築文化暢達에 더욱 정진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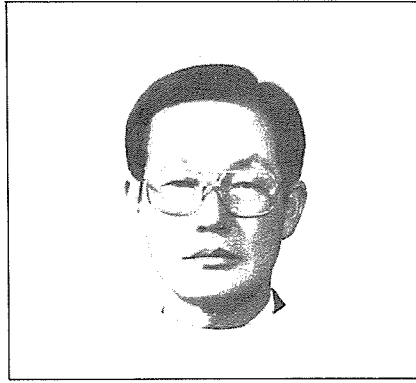
더욱이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적 대전을 앞두고 우리들 건축인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책무는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24여 회원 모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로 이해와 협조로 굳건히 단합하여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갖가지 난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에 회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회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1937. 2. 20일생(全南)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 금성종합설계공사 대표
-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시정 자문위원회 위원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전라남도지역개발협의회 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지부장



監事 柳根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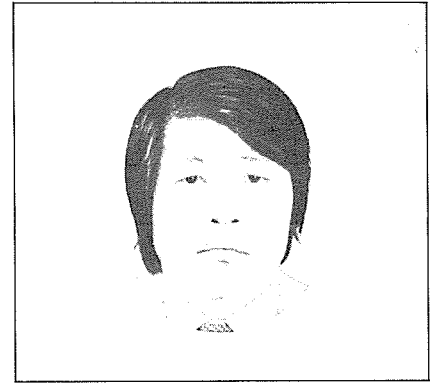
淺學非才한 사람이 監事의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짐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리 협회가 창립된지 벌써 성년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회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보아왔고 또한 성장을 거듭해 온 사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아직도 우리 회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고 봅니다. 간혹 회원들 사이에 오고가는 말중에서 협회가 회원들로 부터 많은 회비만 받아갔지 회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는냐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명쾌한 답을 주기는 어려울지만 그동안 우리가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뭉쳐살아 왔기에 오늘이 있고 또한 밝은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신임회장이 협회운영에 밝으신 분이고 해박함은 물론 뚜렷한 소신을 가지신 분이기에 나 또한 新執行部에 거는 기대 더더욱 큼니다.

본인은 그동안 지방에서 지부장을 한 경험이 있어 우리 회원이 협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비록 미력한 힘이 될지 모르나 회원의 입장에서서 충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바이며 회원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1936. 8. 8일생(대전)
- 대전공업고등학교 건축과졸업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졸업
- 대전시정 근무
- 유근열 건축연구소 개설
- 본협회 충남지부장역임



監事 李康植

1년전 졸업하는 기본으로 감사직을 퇴임하였었습니다.

금번 총회에서 두분감사님들이 그만두시게 되어 보다 유능하신 분들이 계신데에도 미려한 제가 다시 한분의 잔여임기를 맡아보게 되어 송구하기 짝이없습니다.

사무실 운영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양하고 싶었습니다만 개인보다 대의를 위하여 말은바 책임을 다하고자 하니 많은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회원은 같은 배를 타고가는 동료이고 우리 협회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건조된 배로 머나먼 목적지를 향하여 운항되는 배에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항하다 보면 폭풍우도 만나며 커다란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현시점은 커다란 파도를 타며 개조하여야 하는 배에탄 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파도에 밀려 떨어진 동료도 끌어올려야 하며 파도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여객선으로 만들기 위해 수선도 하여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목적지는 커녕 난파의 우려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이상 목적지는 한곳 밖에 없으며 운명도 이 배와 함께일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젓는다면 더 많은 힘이 들 것이며 지쳐갈 것입니다.

자 침실도 안락하게 만들고 식당도 만들며 청소도 하고 해상수영장도 만들어 호화여객선으로 승풍에 돛을달고 희망의 나라로 향하는 보람을 찾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938. 4. 28일생 경기도
- 한양대학교공대 건축공학과 졸
- 1 급건축사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역임
- 주식회사 완중합건축 대표이사(현)



金枝泰會長 離任辭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본인이 2년전 제17회 定期總會에서 本協會 會長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그동안 협회발전에 이바지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제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 보았으나 여의치 못한 주변여건 등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일들을 남겨 놓은채 이렇게 아쉬움 속에 離任人事를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명실공히 우리 협회를 우리나라 건축계를 주도해가는 단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들의 숙원사업이던 새 會館의 준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며 建築研究委員會의 활성화에 따른 연구결과의 보급으로 회원업무 개선을 꾀하였고 國際交流를 적극추진하여 해외선진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공식관계수립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회원 여러분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의 관심사였던 建築士法改正(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게 채택되어 국회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就任辭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하나로 밝힌바 있는 지역별 자율적체제인 聯合會制度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제와 그 맥락이 연관됨으로 해서 다소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 됨에 따라 비록 그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성취시키기 어렵다고 보며 전회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깊은 관심과 여건속에서만 비로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을 회고해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重疊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고 심각하기조차 했던 시기였으며 그러한 속에서도 본인이 큰 과오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이해 속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新任會長을 정점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우애와 신의속에 공동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이 離任人事를 드리면서 이렇듯 마음 든든히 생각하는 것은 저를 이어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훌륭한 신임회장님을 모시게되어 본인이 재임기간중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훌륭히 마무리해 주실 것은 물론 우리를 위한 더많은 일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신임회장님께서도보다 많은 업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와 격려를 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년동안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선 紙面을 통하여 離任人事를 대신합니다.

1984. 11. 16.